

## ■ 1492, 콜럼버스 그리고 2009, 우리

— 영화 〈1492. 낙원의 정복〉을 통해 본 콜럼버스 그리고 우리

김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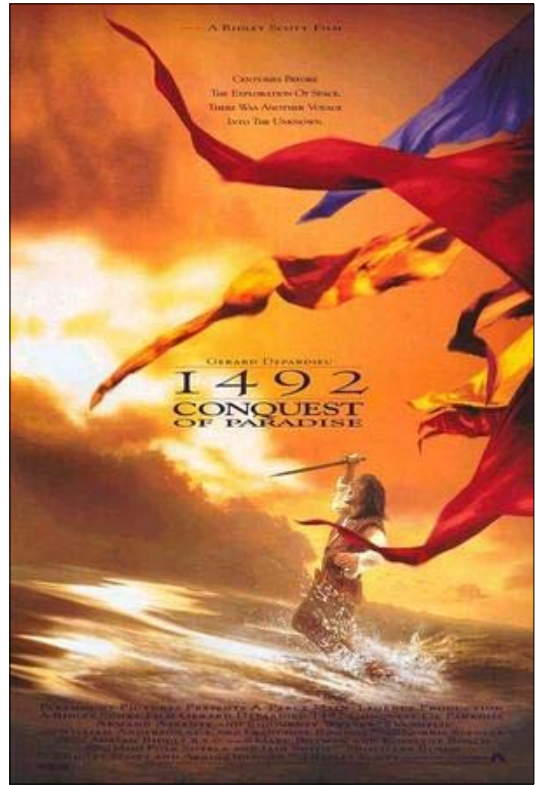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No More Ahead).” 광대한 바다로 나가는 바닷길 초입에 거대한 글귀가 벽처럼 가로막혀 있다. 커다란 범선 한 척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향해 항해를 계속하더니 기어이 ‘No’라는 글귀를 무너뜨리며 먼 바다로 나아간다. 남은 글귀는 ‘More Ahead.’ “더 큰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한 통신업체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로 내보내고 있는 영상이다.

말할 나위 없이,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착안한 광고다. 100미터에 달하는 범선을 실제로 만들고 100여 명의 배사람이 탑승해 항해했는가 하면 항공촬영을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등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듯 광고를 제작했다는 후문이다.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 콜럼버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화 창조에 나서겠다는 것이 기업이 밝힌 광고의 기획 의도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나아가,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여 유럽과 아메리카를 이어주고 세계에 관한 인식을 한 차원 도약시킨 위대한 모험가 콜럼버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중이 소비하고 있는 콜럼버스의 이미지다.

## 1492, 콜럼버스: 영화에 비친 콜럼버스의 이미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이 합작해 만든 영화 <1492, 낙원의 정복> (1492: Conquest of Paradise, 리들리 스코트 감독, 1992)에 비친 콜럼버스는 이러한 대중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당대 학문의 정점 스페인 살라만카 대학에서 가진 논쟁에서 중세의 지적 전통에 머문 보수적 학자들과 다투며 근대적 지리 지식을 설파하는 르네상스적 지식인이다. 또한 숭한 고난과 도전에 과



감히 맞서는 영웅, 원주민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려는 선한 이웃이자 세계 시민, 그리고 신세계의 첫 도시 이사벨라를 이상향으로 만들고자 하는(도시를 다빈치의 설계도면대로 건축하려 한다) 몽상가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끝내 그의 꿈이 좌절되고 말기에 스코트가 재현한 콜럼버스는 비극적 영웅에 가깝다.

그런데 장대한 원정과 기나긴 역사 서술을 154분에 압축하기 위해 의도된 편집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네 차례 항해를 두 번의 항해로 축약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영화 <1492. 낙원의 정복>의 한 장면. 오른쪽 하단의 지구본은 시대착오적인 소품이다.

당대의 사고를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릇된 상식. 이는 콜럼버스 신화의 주된 레퍼토리다. 일찍이 그리스의 과학저술가 ·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구체로서의 지구 가설에 근거해 지구의 둘레를 거의 실제거리에 가깝도록 계산해 낸 역사적 성취를 뒤로 함은 물론이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콜럼버스를 영웅적이고, 이성적이며, 근대적이기까지 한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었다.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와 항해』(1828)에서 콜럼버스가 항해에 나서기 앞서 1486년 살라만카 대학에서 학자, 성직자들과 더불어 지구가 평평한지를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고 묘사했다.<sup>1)</sup> 이러한 해석은 100년이 넘게 위세를 떨치며 오늘날의 대중적인 콜럼버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1940년대가 되어서야 콜럼버스 영웅 만들기가 퇴조하고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즈음하면서는 콜럼버스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면서 이윽고 그를 둘러싼 종합적 그림이 완성되어 가기에 이르렀다.

1) 영화에서는 서쪽 항로를 통해 아시아에 이르는 거리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토론장 한가운데 생뚱맞게도 지구본이 놓여 있다. 1492년에 가서야 마르틴 베하임이 첫 지구본을 세상에 선보였으므로 시대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웅은 늘 그렇듯 또한 마음 착한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다. 영화 속의 콜럼버스는 원주민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렇지만 콜럼버스는 원주민 편에 서려고 했기보다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황금을 찾는 일에 주력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 “원주민의 입장에서, 콜럼버스는 빛을 움켜쥐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뛰쳐나온 선발대”(Ayala & Lipsett-Rivera 199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통역사 우타판이 영화 말미에 “당신은 우리들의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서 그의 곁을 떠날 때 남긴 말처럼, 그는 끝까지 그들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다. 결국, 문제는 콜럼버스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콜럼버스와 그의 ‘신대륙 발견’에 관한 시각은, 콜럼버스의 영웅적 행위를 통해 풍요로운 신대륙이 새로 태어났다는 시각(‘백색 전설 La Leyenda Blanca’에 해당한다)부터, 콜럼버스의 행위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원주민의 인종 청소가 대대적으로 시행됐다는 시각(‘흑색 전설 La Leyenda Negra’에 해당한다)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리들리 스코트의 콜럼버스는 전자에 기운다. 스코트가 이를 의식하면서 크게 의존하는 영화적 장치는 문학 작품과 시각 예술에서 상징적인 기법으로서 곧잘 활용해 온 빛의 효과다. 영화 속에서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는 콜럼버스를 르네상스적 계몽가이자 몽상가로 묘사하는 효과적 도구가 된다. 칠혹 같은 밤에 광장에서 종교재판으로 마녀를 화형에 처하는 장면, 어두침침한 살라망카 대학의 강당에서 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 등 스페인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컷은 어둡게 처리된다. 반면에, 콜럼버스는 밝은 야외로 나가서 모험에 나서고 그의 꿈을 마구 펼친다. 19세기 미국의 애국주의적 역사



약식 재판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스페인 귀족 모히카(미카엘 윈코트 분)

가들이 해석한 몽상가로서의 콜럼버스의 이미지를 차용한 탓이다 (Ayala & Lipsett-Rivera 1997).

영화는 콜럼버스를 몽상가이자 원주민의 ‘선한 이웃’으로 부각 시키고자 악역 모히카를 등장시킨다. 콜럼버스를 다룬 콘셀로 바렐라의 편지에서 잠깐 언급되는 아드리안 데 무히카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Ayala & Lipsett-Rivera 1997). 원주민에게 노역을 시키고 박해하는 역할 또한 모히카에게 맡김으로써 콜럼버스에게 선량한 이미지는 배가된다. 원주민이 자기네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줄 정도로 영화 속 원주민의 이미지가 고양됐다고 한다면 그와 병행하여 콜럼버스의 이미지도 더욱 고양된 것(Stam 1995: 108). 결국 모히카로 대변되는 귀족 세력의 강고한 저항 때문에 민주적 면모를 지닌 콜럼버스의 참신한 기획은 파국을 맞는다. 영화 속에서 콜럼버스의 이상은 원주민을 착취하면서 신대륙의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스페인 귀족 세력으로 인해 좌절되는 것으로 그려진다(Shultz 2007: 3).

그렇지만 실제로 콜럼버스의 기획이 실패한 것은, 잘못된 동기

(비록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치장을 두르긴 했지만)에서 출발한 원정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며 관리 능력의 결여로 일대 혼란을 겪다 스스로 자멸한 것으로 봐야 옳지 않을까. 차후에 스페인 제국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진출한 세력이 결국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며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석권한 훗날의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대중의 이해와 신화를 넘어서서, 역사적 실체로서의 콜럼버스를 마주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모험가이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병 노릇을 한 콜럼버스다. 물론 그에게 휴머니즘과 탈유럽중심주의를 요청하는 건 무리다. 그가 철저히 유럽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은 거기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어둠에 사로잡힌 구세계를 떠나 빛이 가득한 아메리카로 떠난 그의 모험이 실은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가 카리브 해에서 처음 맞닥뜨린 원주민을 보고서 친구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의 땅에서 황금을 얻을 것인가만을 궁리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항해록을 통해서 보게 된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됐다. 신대륙에 정착하여 이를 식민화하고 그 땅의 주민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표방했으나 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낙원의 정복”이었다(Sale 1991: 370). 콜럼버스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에서 어느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왜곡이다. 무릇 역사적 왜곡이란 언제든 결정적인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콜럼버스에 접근하고 ‘신대륙 발견’이라는 사건을 꼼꼼히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2009, 우리: 우리들의 초상

과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다. 몇몇 전문가와 지적 독서가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주로 구전을 통해 과거를 알아 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접하는 방식은 단연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다. 사람들은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광고에서 거의 제한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를 통해 과거를 대량 소비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런 매체에서 재현되는 과거와 실제의 역사적 사건은 사뭇 다르다는 것. 이들이 과거를 연구하는 쓸 만한 소개 자료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또한 과거를 그릇되게 재현하는 “해로운 정보 원천”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Uribe 1998).

앞서 말한 광고에서 보듯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모험가 콜럼버스, 온갖 장애와 편견 그리고 선입견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실천에 옮긴 액티브한 인물 콜럼버스라고 하는 신화가 통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유럽중심주의에 빠진 사대주의자들이 아닐진대 식민지 경험을 한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콜럼버스에 관한 편향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1492. 낙원의 정복>은 그 영화적 성취 그리고 콜럼버스 논쟁에서 차지하는 의미와는 별도로, 그 편향성과 19세기적 진부한 해석이 반영된 영화 내용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소비하는 광고의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뜻밖에도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작이라고 하겠다.

우리말로 된 책 가운데 학술서적 이외에 탐험가이자 정복자

콜럼버스를 비교적 정직하게 기술한 몇 종의 교양서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교양서적과 아동도서(위인 전기물을 비롯한)가 콜럼버스를 ‘위대한 항해’를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를 이어준 인물’로 그리고 있다.<sup>2)</sup>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방식이 실제로 과연 어떠한 구체적 면모를 띠었느냐 하는 게 문제다. 유럽과 아메리카는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과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가. 한 번 발을 들여 놓은 역사의 시계 바늘을 뒤로 되돌릴 순 없다.

콜럼버스는 중세를 벗어난 르네상스적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리상의 발견에 있어서 선구 주자였다. 그는 그리스도교 중심의 폐쇄적인 중세 세계관을 벗어나 과학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고 구세계의 질서를 벗어나 신세계에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획을 심중에 품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영웅 콜럼버스의 이미지다. 그렇지만 실은 그의 사고들은 유럽중심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황금과 자원을 찾아 나선 탐험 원정을 그리스도교 선교로 합리화하려 한 점에서 그는 당대의 프리랜서 벤처 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이성형 2003: 33). 그의 사고는 철저히 유럽적이었다. 다만 그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를 꺼려 한 캐릭터였다. 다시 말해 모험 정신이 그의 생애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셈이다.

우리가 콜럼버스에게서 찬탄하는 점 또는 배울 만한 점이라면 그러한 모험 정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행 능력, 즉 추진력과 결단력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의 유럽중심주의적 사고, 그리고 타자를 대하면서 자신의 사고들에 맞춰 판단하는 그의 경직된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가 식민주의자

2) 위인 전기물의 경우만 본다면,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유통되는 10종의 콜럼버스 전기 가운데 9종이 그러한 시각을 반영하였고 1종만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 이미지는 소위 메이저 출판사에서 낸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의 원형적 모습을 가진 것을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콜럼버스가 탐험가이자 동시에 정복자였다는 역사적 실체를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콜럼버스의 모험과 발견,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어떻게 국가적 은유를 형성해 왔는지를 연구한 클로디어 부시먼은 “우리가 콜럼버스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결론 내린다 (Bushman 1992: 190). 콜럼버스의 영웅적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한 이 땅의 우리에게도 이 말은 유효하지 않을까. 콜럼버스가 대중에게 인식된 방식 그리고 콜럼버스의 대중적 이미지는 옳든 그르든 이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말이다. 모험가로서의 콜럼버스만이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라면, 이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정복자로서의 이미지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깨이지 않은 탓이다. 다시 말해, 지난 세기 식민지 경험을 한 우리는 아직까지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를 큰 틀에서 바라보는 역사의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려오던 울부짖음에 눈과 귀가 멀었으며, 여전히 철저히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으며, 강자의 힘을 마치 우리 편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1492년 그의 항해와 카리브 해 과나아니 섬<sup>3)</sup> 상륙으로 신세계가 구세계에 처음 소개되고,<sup>4)</sup> 타자를 인식하고 지구라는 하나의 전체 단위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근대성의 탄생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1992년은

3) 콜럼버스의 첫 상륙지는 역사적 논쟁거리이나, 보통은 바하마제도의 산 살바도르라고 한다.

4)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몇 백 년 앞선 바이킹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의 역사는 정사에서 간단히 편집되어 버리고 만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실은 유럽중심주의가 발원하며 그동안 한낱 이슬람 세계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유럽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계기가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양대륙이 모두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보는 비판적 사고가 제기되고, 그러한 근대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근대성 논의가 이뤄지게 된 시점이다. 그렇듯 바야흐로 종합적 인식과 보다 깊이 생각하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한 새로운 인식의 틀과 패러다임에서 바라본 콜럼버스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적 이미지로서의 콜럼버스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리들리 스코트의 영화는 비판적 사고를 반영한 커크패트릭 세일의 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낙원의 정복』과 똑같은 제목을 달고서도 (클로디아 부시먼이 친절히 소개한 대로) ‘선한 이웃’의 이름을 지닌 영웅 콜럼버스를 다룬 19세기 워싱턴 어빙식 콜럼버스의 20세기 버전을<sup>5)</sup> 콘텐츠로 삼아,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나 철학적 사고 면에서 무척이나 안전한 구도 (선악의 대결, 귀족과 평민의 대결 등)로 만들어진 영화다(Ayala & Lipsett-Rivera 1997; Halin 2002). 그렇지만 서두에 제시한 대로 영웅 콜럼버스의 이미지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실정이고 보면, 영화에 나타나는 대로 이상이 좌절되고 만 비극적 영웅 콜럼버스의 이미지를 나무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영화든 광고든 예술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그 어디든지 사물의 이면으로 파고들어가 그 상징 조작과 숨겨진 함의를 살펴보고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이것이 곧 비평이다)은 비판적인 수용자(소비자, 예술감상자, 시민 등)인 우리들 몫으로 남는다. 더는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5) 수도원의 주먹질 장면과 모히카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는 장면을 보면 영락없는 할리우드 영화 버전이다.

## 참고문헌

- 이성형. 2003.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
- Ayala, Sergio Rivera; Sonya Lipsett-Rivera. 1997. "Columbus Takes On the Forces of Darkness, or Film and Historical Myth in 1492: *The Conquest of Paradise*." In Donald F. Stevens(ed.), *Based on a True Story: Latin American History at the Movies*.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 Bushman, Claudia. 1992. *America Discovers Columbus: How An Italian Explorer Became An American Hero*.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Halin, Petteri. 2002. "Columbus in Columbian Quincentennial." In *History in Words and Image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Historical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Turku, Finland, 26-28 September), 221-230.
- Sale, Christopher. 1991. *The Conquest of Paradise*. New York: Plume.
- Schultz, Deanne. 2007. *Filmography of World History*. Santa Barbara: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tam, Robert. 1995. "Eurocentrism, Polycentrism, and Multicultural Pedagogy: Film and Quincentennial." In Rom n De la Campa, E. Ann Kaplan, and Michael Sprinker(eds.), *Late Imperial Culture*. New York: Verso.
- Uribe, Victor M. 1998. "Based on a True Story: Latin America History at the Movie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Fall 1998.

---

김요한 - 번역가. 『세계 지도의 역사』 등을 옮겼다.

---